



## 광산김씨의 임란 의병활동과 의의

— 김해 부대를 중심으로

이 옥\*

### 차례

1. 머리말
2. 임진왜란 초기 김해<sup>金垓</sup>의 의병 활동
3. 김해 의병 활동의 특징과 의의
4. 맺음말

### 요약

이 글은 광산김씨 예안파 문종의 임진왜란 당시 의병활동과 그 성격을 고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특히 광산김씨의 일원이었던 김해<sup>金垓</sup>는 임란 초기부터 예안 의병의 중심에 있었을 뿐 아니라, '안동열읍항쟁' 결성 이후에는 도대장<sup>都大將</sup>으로 경북 북부 일원의 의

\* **李旭**, 순천대학교

병부대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 때문에 이 글에서는 광산김씨의 의병활동을 안동·예안지역 의병의 구체적인 활동 양상과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성격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광산김씨 예안파 문중 사람들은 전쟁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의병을 결성하여 초기부터 활약하였다. 처음에는 관군과 협력하여 죽령으로 일본군 진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들의 목적은 달성되었지만, 일본군에게 예안이 점령당하면서 이 지역 의병활동은 한때 위축되었다. 그러나 전세가 반전되면서 의병이 재결성되었다. 경상북도 북부지역 대다수 군현을 포괄한 대규모의 '안동열읍항병'이 결성되었고, 광산김씨 예안파의 김해가 대장으로 추대되었다. 안동열읍항병은 전열을 재정비한 관군과 협력하여 일본군의 핵심주둔지인 당교를 집중 공격하였다. 마침내 일본군이 당교에서 철수하자 그들을 쫓아 밀양, 경주까지 진출하였다. 이와 같은 의병 활동은 경상도에 주둔하던 일본군과 복성한 일본군 주력부대의 연결고리를 끊거나 경상도 지역의 주요 거점 지역을 분쇄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일본군의 전력을 약화시켜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김해가 지휘했던 안동열읍항병은 해당 지역 명망 사족들의 연합부대의 성격을 지녔다. 이들은 대부분 이황의 문인들이었다. 이들과 연합했던 관군 지휘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 사이에는 학문적인 일체감 뿐 아니라 혼인 관계도 겹치는 매우 밀접한 사이였다. 때문에 예안 의병은 관군 지휘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관군이 지닌 병력과 무기의 우수함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예안 의병의 활동은 기존 임진왜란사나 의병사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임란 초기 관군의 활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어

: 임진왜란, 예안, 광산김씨, 김해, 의병, 안동열읍항병

## 1. 머리말

임진왜란은 일본의 급습으로 시작되었고, 이후 명나라의 참전으로 동아시아 3국이 모두 전쟁에 휘말려든 ‘세계대전’이었다. 국제질서를 요동시킬 정도로 영향력이 컸고, 전쟁 피해국인 조선의 입장에서는 사회 전반에 급속한 변화를 초래한 사건이었다.<sup>1</sup>

그러나 건국 이후 200년 동안 평화를 구가하던 조선은 전쟁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전쟁 초기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했다.<sup>2</sup> 일본군은 승기를 타고 파죽지세로 서울까지 진격하였다. 이같은 불리한 전세를 역전시키는데 의병이 큰 역할을 했음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이 때문에 임진왜란 연구에서 의병은 중요한 연구주제였고 가장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다.<sup>3</sup>

그 중에서도 경상도의 의병 활동은 적의 후방에서 보급로를 차단하는 한편, 낙동강 전선을 사수하고 곡창 전라도를 지켜냄으로써 국난극복의 전기轉機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지방의 의병운동보다 주목을 받았다.<sup>4</sup> 이를 통해 경상도 의병의 활약상과 의병 조직, 의병활동의

---

1 임진왜란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그 중에서 李炯錫, 『임진전란사上·中·下』(壬辰戰爭史刊行委員會, 1974)는 초기에, 그리고 가장 종합적으로 임진왜란을 연구하였다. 이외에도 많은 연구 성과가 있지만, 일일이 열거하지 않았다.

2 崔永禧, 『壬辰倭亂中の 社會動態』, 韓國研究院, 1975.

3 임진왜란 의병 활동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대표적인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崔永禧, 위의 책; 이장희, 『壬辰倭亂 義兵性格의 分析』, 『韓國史論』 22, 1992.

4 경상도지역 의병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저서로는 다음과 같은 성과가 있다.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편, 『慶北義兵史』, 慶尙北道, 1990; 金康植, 『壬辰倭亂과 慶尙右道の 義兵運動』, 해안, 2001; 최효식, 『임진왜란기 영남의병연구』, 국학자료원, 2003; 최효식, 『임란기 경상좌도의 의병항쟁』, 국학자료원, 2004.

사회적·경제적 배경 등 다양한 측면이 밝혀졌다.

한편 경상우도에 비해 경상좌도 의병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략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안동·예안 지역 의병 활동은 어느 정도 연구가 이루어졌다.<sup>5</sup> 그 결과 이 지역 의병 활동은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을 지녔음이 밝혀졌다. 첫 번째는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지역 의병 부대의 인적 구성이 경상도 북부를 포괄할 정도의 대단위 부대였다는 점이다. ‘안동열읍항병’이라 불렀던 이 의병부대의 대장이 근시재(近始齋) 김해(金垓)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두 번째는 이 지역 의병 활동이 관군과의 긴밀한 협조 관계 속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는 이 지역이 당시 정국을 주도하던 세력인 동인(東人)의 근거지였던 점, 이 당시 경상도 감영이 안동에 임시 설치되어 감사, 병사 등과 긴밀한 접촉을 가질 수 있었던 점, 경상우도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안동에서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사족 세력이 지역 사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점 등이 지적되었다.

이 글은 기존 연구 성과를 활용하면서 예안 의병장 김해의 활동을 고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김해는 임란 초기부터 예안 의병의 중심에 있었을 뿐 아니라, ‘안동열읍항병’ 결성 이후에는 도대장(都大將)으로 경북 북부 일원의 의병부대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다. 이러한 위상 때문에, 이 글에서는 김해 개인이나 광산김씨의 의병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안동·예안지역 의병의 구체적인 활동 양상과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미와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상도 의병 활동은 전쟁 초기 관군의 일방적인 패퇴와 일본군의 약

---

5 金龜鉉, 「壬辰倭亂中の 安東義兵」, 『郷土慶北』 창간호, 1987; 정진영, 「안동지역 壬亂義兵」, 『安東文化研究』 창간호, 1996; 盧永九, 「임진왜란 초기 近始齋 金垓의 의병 활동」, 『君子里 그 文化史的 性格』, 2001.

탈 행위에 저항하는 향토방위 차원의 의병활동에서 출발해서, 각 지역의 의병들이 연합하여 일본군의 주요 주둔지와 읍성을 공략하고 탈환하는 형태로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6</sup> 안동·예안 지역 의병 역시 이러한 모습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죽령 진출로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상, 초기부터 향토방위와 함께 일본군의 서울 진출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의식도 강하게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우선 임진왜란 초기 향토방위와 죽령진출로의 차단을 위한 의병활동과 ‘안동열읍향병’의 결성과 활동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어 ‘안동열읍향병’ 활동의 특성과 그 의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임진왜란이라는 국난기에 광산김씨 예안파가 담당했던 역할과 그 의미가 재조명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2. 임진왜란 초기 김해金垓의 의병 활동

### 1) 임진왜란 직후 예안 지역의 동향과 김해의 의병 활동

임진왜란 발발 소식이 안동 일원에 전해진 것은 4월 14일이었다.<sup>7</sup> 4월 14일 상주 지역에 일본군의 침략 소식이 전해지고 이 지역 군사의 출동 명령이 내려졌다.<sup>8</sup> 4월 15일에는 경상도 관찰사의 병력 동원 명

6 李旭,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의병 활동과 성격」, 『임란의병사의 재조명』, (사)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2a.

7 金垓, 『鄕兵日記』 壬辰年 4월 14일.

8 趙靖, 『壬亂日記』 壬辰年 4월 14일.

령이 하달되었다.<sup>9</sup> 당시 대규모 외침이 있어 군사동원 명령이 내려지면 제승방략(制勝方略)에 따라 각 군현마다 사전 약속된 장소에 집결하도록 되어있었다.<sup>10</sup> 이에 따라 안동에서도 군사를 동원하였다. 4월 17일 안동 판관, 4월 18일에는 안동 부사 정희적(鄭熙績)이 이끄는 군사들이 영천을 지나가고 있다.<sup>11</sup> 안동과 영천의 거리를 감안하고 군사 징발에 필요한 시기를 고려하면, 적어도 4월 14일 정도에는 전쟁 소식과 함께 군사 동원 명령이 안동에 도착했을 것이다. 예안과 봉화 수령도 마찬가지로 전쟁 소식을 관보를 통해 듣고 군사를 동원하여 정해진 장소로 갔을 것으로 추측된다.<sup>12</sup>

그러나 이 지역의 집결지 울산에 모였던 13 고을의 경상도 군은 경상 좌병사 이각(李珩)이 먼저 도망치는 바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흩어지고 말았다.<sup>13</sup> 이후 이 지역 수령들의 대응에 차이가 있었다.

안동 부사 정희적은 영천에 머물고 있다가 대구와 경주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안동 방어를 포기하고 청송으로 피난가고 말았다.<sup>14</sup> 안동 판관 윤안성 역시 4월 26일 혼자서 안동으로 돌아왔는데,<sup>15</sup> 군사

9 李擢英, 『征蠻錄』 乾, 壬辰年 4월 15일.

10 李泰鎮, 『韓國軍制史-朝鮮前期篇』, 육군본부, 1968, 381쪽.

11 鄭士誠, 『芝軒先生文集』 卷3, 雜著 「壬辰日錄」 4월 17일, 18일.

12 예안과 봉화 사례는 알 수 없다. 다만 의성의 경우 4월 15일 전쟁 발발 소식을 듣고 의성 군수 이여운이 군사들을 징발하여, 이튿날 새벽에 군사를 거느리고 경상 병사에게 가서 배속시키고 있다. 예안과 봉화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李汝饋, 『炊沙先生文集』 권3, 「龍蛇錄」).

13 노영구, 앞의 논문, 2001, 183쪽.

14 鄭士誠, 『芝軒先生文集』 卷3, 雜著 「壬辰日錄」 4월 21일.

15 趙慶男, 『亂中雜錄』 1, 壬辰年 4월 26일.

를 모아 거사하려고 3일이나 종을 올렸으나 사람들이 호응하지 않자 떠나고 말았다.<sup>16</sup> 봉화나 풍기·영주 등 주변 지역도 수령들이 모두 피난을 떠나 행정 공백을 초래하고 있었다. 다음의 자료를 보자.

- ① 전날 부사 정희적이 성을 버리고 도망가면서 관가 창고의 문을 열어 미포와 군기 등을 마음대로 가져가게 하였다. 각 현의 창고 곡식이 일시에 텅 비고, 군기도 다 없어져버렸다. […중략] 향소鄕所 등에서도 한 사람도 정희적을 막지 못했고, 모두 도망가 숨어버렸다.<sup>17</sup>
- ② 신이 지난 4월 27일 본도의 풍기 영천 등지를 지났는데 모든 백성들은 거의가 몸을 피하여 산으로 숨어버렸고 찾아간 마을마다 적막하게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sup>18</sup>
- ③ 봉화에 이르니 관아와 민사가 씻어낸 듯 비어있었고, 개와 닭도 없었다. 놀랍고 참혹하여 차마 볼 수 없었다.<sup>19</sup>
- ④ 인심이 한 번 흠어지니 정의가 어그러지고 노복들은 그 주인도 아랑곳 하지 않으며 이졸吏卒들은 그의 수령이 있는 곳조차 모르는 채 마을 거리를 횡행하면서 대낮에 떼를 지어 재물을 약탈하는가 하면 심지어 왜복倭服으로 변장하여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여 들판에 널려있어도 누가 감히 그 잘못을 제재하지 못하고 있으니 군사를 뽑아 전쟁터로 나가라는 말은 함부로 꺼낼 수 없다.<sup>20</sup>

16 金垓, 『鄉兵日記』壬辰年 4월 14일.

17 鄭士誠, 『芝軒先生文集』卷3, 雜著「壬辰日錄」5월 15일, “前日府使鄭熙績棄城時官家倉庫米布及軍器等物 開門令民任意取去 各縣倉穀一時空虛 器械板蕩… 鄉所等 無一人救止之 皆竄伏不出.”

18 金功, 『栢巖先生文集』권5, 「條陳慶尙道軍情賊勢狀啓 安集使時○壬辰」.

19 鄭士誠, 『芝軒先生文集』卷3, 雜著「壬辰日錄」5월 17일.

20 위와 같음.

앞의 ①번 자료는 안동 상황이다. ②번 자료는 안집사 김록<sup>金玠</sup>이 영주와 풍기의 상황을 전한 것이며, ③번 자료는 봉화의 상황을 말한 것이다. 이처럼 안동과 영주·풍기·봉화 지역은 수령들이 피난을 가자, 민심이 동요하여 고을 전체가 텅 빈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때문에 수령이 피난 간 지역의 민심은 크게 동요하였고, 심지어 일본군을 가장하여 약탈을 자행하는 상황이었음을 ④번 자료가 잘 보여주고 있다.

수령들의 피난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전쟁 초기 동원되었던 군사들이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4월 28일 상주를 점령한 일본군의 일부가 안동을 습격하였다. 그러나 안동 지역 투석군<sup>投石軍</sup>의 격렬한 저항을 받았고, 일본군은 결국 풍산과 다인 일대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sup>21</sup> 다시 말해 일본군의 침입을 받아 지휘부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안동 지역의 군사들이 자발적으로 일본군을 막아냈던 것이다. 그러나 행정의 공백 때문에 이러한 군사는 자연적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을 지휘할 장수가 없어서,<sup>22</sup> 군사들도 살 길을 찾아 흩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sup>23</sup>

한편 예안의 상황은 이와 달랐다. 예안 현감 신지제는 차질 없이 행정과 치안을 유지하고 있었다.<sup>24</sup> 이 때문에 예안에서는 일찍부터 난에

21 趙靖, 『壬亂日記』壬辰年 4월 28일.

22 鄭士誠, 『芝軒先生文集』卷3, 雜著「壬辰日錄」5월 15일, “聞安東邑內擲石人 羣聚五百餘人 欲爲合力討賊 而無主將 且前日府使鄭熙績棄城時 官家倉庫米布及軍器等物 開門令民任意取去 各縣倉穀一時空虛 器械板蕩 … 鄉所等 曾無一人救止之 皆竄伏不出.”

23 위의 책, 5월 19일.

24 金玠, 『栢巖先生文集』권5, 「條陳慶尙道軍情賊勢狀啓 安集使時○壬辰」.



대비한 의병이 결성되었다.

- ⑥ 이 병난이 처음 일어났을 때 형세가 일에 미칠 수 없게 되었으나 선비를 규합하여 겨우 100여 명을 얻었다. 그들에게 무예를 며칠 동안 연습하게 하였으나, 적의 흉악한 칼날이 갑자기 들이닥치자 무예를 익히지 못한 병졸들은 사기가 충만한 적도를 당해내기 어려워 활을 당기기도 전에 피가 가슴에서 흘러내렸다. 그 후 적이 물러가 다시 의병을 소집하고 또 하인 수백여 명을 모았으나 그들 중 활을 잡을 줄 아는 사람은 10분의 1도 되지 않아 적을 분연히 격퇴하거나 완전히 밀어내긴 어렵다.<sup>25</sup>

위의 자료는 김해가 안집사인 김성일에게 보낸 편지이다. 이를 보면 김해가 중심이 되어 임란 초기 두 차례에 걸쳐 의병이 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처음에는 선비 중심으로 100여 명 정도의 의병을 결성하고 무예를 익히고 있었다. 그 와중에 일본군의 침입을 받아 이때의 의병은 별다른 활동을 하지 못하고 궤멸되었다. 이 시기는 아마도 1592년 5월 18일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 ⑦ 다시 들으니 상주와 용궁에 머무르던 일본군 수십 명이 안동과 예안의 관문官門까지 깃쳐들어왔다가 돌아갔다고 한다.<sup>26</sup>

1592년 5월 18일에 일본군이 안동과 예안을 침입하였다. 위의 자료에서 일본군이 갑자기 들이닥쳤다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때가 아닌가

25 金垓, 『近始齋集』 권3, 「復金鶴峯 時鶴峯爲招諭使」.

26 鄭士誠, 『芝軒先生文集』 卷3, 雜著「壬辰日錄」 5월 18일.

생각된다. 그리고 안동과 예안의 관문까지 왔던 일본군이 순순히 돌아갔을 리는 없다. 아마도 안동과 예안 군사들의 반격을 받아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고, 결국 점령을 포기하고 철수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예안 의병 역시 많은 희생을 입고 부대가 와해되었던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던 척석군이 5월 26일에 이미 와해되어 있었던 것도, 이 전투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㉞번 자료에서는 이러한 희생 뒤에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의병이 결성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두 번째의 의병 결성 계기는 안집사 김륙과 관련이 있었다. 조선 정부는 전항을 만회하기 위해 1592년 4월 김성일을 초유사,<sup>27</sup> 김륙을 안집사로 임명하고,<sup>28</sup> 경상도에 내려가 의병을 모집하게 하였다.<sup>29</sup>

1592년 5월 경상도로 내려온 김륙은 먼저 고향인 영주(당시는 榮川)에 가서 김개국<sup>金蓋國</sup>을 수장<sup>首將</sup>으로 삼아, 의병을 조직하였다.<sup>30</sup> 영주에 이어 안동으로 온 김륙은 무엇보다 먼저 수령의 피난으로 빚어진 행정 공백을 메우는데 주력하였다. 그래서 수령이 없었던 안동은 전 도시<sup>前都事</sup> 안재<sup>安霽</sup>·전 검열<sup>前檢閱</sup> 김용<sup>金涌</sup>, 풍기는 교서 박사<sup>校書博士</sup> 황서<sup>黃曙</sup>, 의성은 훈련권지<sup>訓練權知</sup> 권희순<sup>權希舜</sup>, 예천은 전 현감<sup>前縣監</sup> 이유<sup>李愈</sup>를 모두 가장<sup>假將</sup>으로 임명하여 해당 고을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sup>31</sup>

행정 공백을 메운 다음 김륙은 군대를 모집하고자 하였다. 이때 김

27 『宣祖修正實錄』卷26, 宣祖 25년 4월 癸卯.

28 金玛, 『栢巖先生文集』附錄, 「年譜」萬曆二十年 壬辰 四月.

29 『宣祖實錄』卷26, 宣祖 25년 5월 壬午.

30 金玛, 『栢巖先生文集』附錄, 「年譜」二十年壬辰 五月.

31 金玛, 『栢巖先生文集』卷五, 「條陳慶尙道軍情賊勢狀啓 安集使時○壬辰」.

특의 의도는 의병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관군을 동원해 일본군을 방어하고자 한 것이었다. 그러나 군적軍籍이 모두 분실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각 지역의 사족을 이장里將에 임명하고, 각기 사는 촌락에서 군사를 모아 일본군의 침략을 방비하게 하였다.<sup>32</sup> 촌락 내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사족을 중심으로 의병을 편성하고자 한 것이었다.<sup>33</sup>

김륙이 의병 결성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이미 예안 지역 사족 내부에서 의병 결성에 대해 의논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의 자료를 보자.

- ⑧ 예안의 향인이 분의奮義하면서 서로 말하였다. “나랏일이 이에 이르렀는데 우리들이 어찌 깊은 산에 숨어서 임금의 위급함을 좌시하겠는가! 이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전 한림前翰林 김해金垓를 대장, 생원 금응훈琴應薰을 도총사都摠使로 추대하였다. 진사 이숙량李叔樑은 격문을 지어 열읍에 포고하였다. 각각 자제와 공사천 300여인을 차출하여, 활쏘기와 전술을 익혔다. 전 군수前郡守 조목趙穆, 전 현감 금응협琴應夾·김부륜金富倫 등은 모두 곡식을 내어 군량미를 지원하였다. ○ 또 춘양현에서는 류종개柳宗介와 임흘任屹이 의병을 일으켰다.<sup>34</sup>

예안 사족들은 자발적으로 의병 결성을 논의하였고, 김해를 대장으로 추대하였다. 그리고 조목·금응협·김부륜 등 예안의 원로들은 직접적

32 金垓, 『鄕兵日記』 壬辰年 6월 1일.

33 노영구, 앞의 논문, 2001, 187쪽.

34 金垓, 『鄕兵日記』 壬辰年 6월 11일.

인 군사행동 대신 군량을 지원하는 형태로 의병 결성에 참여하였다. 이때 모집된 인원이 300여 명이었다. 앞에서 보았던 ㉞번 자료에서 수백 명의 의병을 얻었다는 것이 바로 이를 말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때 구성된 김해를 대장으로 하는 의병부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 대 장大將 : 김 해金垓
- 도총사都總使 : 금응훈琴應暉
- 정제장整齊將 : 김택룡金澤龍, 김 기金圻
- 부 장副將 : 김광도金光道, 김광적金光績
- 군량총軍糧總 : 이영도李詠道
- 군 관軍官 : 김 강金綱, 김 평金坪, 채 연蔡衍
- 장 서掌書 : 금 경琴標
- 유 사有司 : 류 의柳誼, 박몽빙朴夢騁
- 기 병騎兵 : 양반 21명, 평민과 중인 32명, 합 55명
- 보 병步兵 : 양반 16명, 평민 226명, 합 244명, 도합 367명<sup>35</sup>

위의 조직을 보면 광산김씨 예안파는 거의 전 문중 차원에서 참여하고 있었다. 김해·김기·김강·김평·김광도·김광적 등 모두 6명이 지휘부를 구성하였다. 여기에 원로인 김부륵을 포함하면 7명이 의병 결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같은 군자리 거주자이며 인척간인 금응협, 금응훈도 포함하면 군자리 마을 전체가 의병에 참여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당시 예안 의병 활동은 일본군의 죽령 진출을 저지하려는 목적이 강하였다. 당시 일본의 주력부대는 계속 북쪽으로 올라갔으나 일부 병

35 김구현, 앞의 논문, 29쪽.

력은 원활한 보급과 상호 연락을 유지하기 위해 후방 요충지에 계속 주둔하면서 군사 임무를 수행하였다.<sup>36</sup> 그런데 죽령마저 일본군에게 내어주면 바로 청풍과 충주로 연결되는 한편, 다른 길로는 제천과 원주가 연결되어 경상도 북부 지역은 경상좌도의 일본군과 충청도 지역의 일본군의 협공을 받는 형세가 될 수 있었다. 또 두 갈래로 나뉜 군대가 서울을 직접 공격할 위험성도 있었다.<sup>37</sup> 이 때문에 안동을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은 죽령을 점령하기 위한 일본군의 공세를 막아내고 죽령으로의 진출을 차단해야 했다.

김륵 역시 안동과 예안 지역이 죽령으로 통하는 지름길임을 잘 알고 있었다.<sup>38</sup> 때문에 관군과 의병이 힘을 합쳐 일본군의 죽령 진출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의병과 관군을 구별하지 않고 한데 섞어, 굳이 관군이나 의병 여부를 구분하지 않았다.<sup>39</sup> 전열을 정비한 다음에는 관군 지휘부와 협력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다. 최고 지휘권은 관료가 행사하였다. 김륵은 인근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면서, 용궁 현감 우복룡禹伏龍과 전 판관前判官 조봉趙鵬으로 하여금 용궁과 예천의 군대를 지휘하여 다인多仁에 있는 일본군을 공격하게 하였다. **예안 현감 신지제申之悌와 새로 급제한 권전權詮에게는 안동과 예안의 군사를 지휘하여 의성 이하의 적을 토벌하게 하였다.** 그리고 영주와 풍기·봉화

36 金昊鍾, 「壬亂 때 唐橋倭賊과 嶺南 北部地方 鄉兵의 抗爭」, 『歷史教育論集』 23·24, 1999, 743쪽.

37 金玜, 『栢巖先生文集』 卷五, 「又(條陳慶尙道軍情賊勢狀啓 安集使時○壬辰)」.

38 金玜, 위의 책, 卷五, 「條陳慶尙道軍情賊勢狀啓 安集使時○壬辰」.

39 위의 같음, “於前日急於聚軍 各邑洞里 定里長有司 官軍鄉兵 竝皆招募 同聚混用 未別名目.”

등의 군사를 파견하여 이를 돕게 하였다. 이때 많은 수의 일본군을 살상하였다.<sup>40</sup>

한때 철수했던 일본군은 6월 16일 재차 예천을 침범하였다. 우북릉과 신지제가 이끈 부대가 이들과 맞서 싸웠다. 그러나 용석현에서 궤멸되었다.<sup>41</sup> 이때 신지제가 이끄는 부대에 안동의 사족인 배인길(裴寅吉)이 속해 있었던 것에서 안동과 예안 지역 의병도 참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42</sup> 이 전투에서는 관군 지휘부의 지휘하에 직접 전투를 벌이는 부대와 매복한 부대로 나누어 편제되어 있었다. 그러나 매복해있던 군사들은 관군이 격퇴되었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흩어지고 말았다.<sup>43</sup>

이후 일본군은 6월 22일에는 안동, 7월 1일에는 예안까지 진출하였다.<sup>44</sup> 예안을 점령했던 일본군은 일시 물러났던 조선군의 반격으로 7월 9일 안동으로 퇴각하였고, 19일에는 안동에서 물러나 풍산현의 구담(九潭)으로 이동하여 10여 일 동안 이 지역을 점령하고 노략질을 하였다.<sup>45</sup>

한편 춘양에서 거의했던 류종개 부대는 1592년 7월말 강원도 해안지대에서 소천을 거쳐 재산으로 진입하려는 일본군을 방어하였다. 류종개는 김륙의 도움을 받아 버텨보았지만, 척후병의 실수 때문에 본진을 기습당해 패배하고 말았다. 류종개와 장서(掌書) 윤흠신(尹欽信)·윤홍도(尹欽道)

40 金玘, 『栢巖先生文集』附錄, 「年譜」, 二十年壬辰 五月.

41 鄭士誠, 『芝軒先生文集』卷3, 雜著 「壬辰日錄」 6월 16일.

42 이욱, 앞의 논문, 2012a, 77쪽.

43 鄭士誠, 『芝軒先生文集』卷3, 雜著 「壬辰日錄」 6월 15일, “官軍潰于龍石峴 自相蹂躪而死者甚多 自後民人潰散 醴泉以東 村閭一空云.”

44 金垓, 『鄕兵日記』壬辰年 6월 22일·7월 1일.

45 盧永九, 앞의 논문, 2001, 191쪽.

형제 모두 전사하였고, 일본군은 소천을 넘어 예안까지 침략하고, 다시 남쪽으로 내려갔다.<sup>46</sup>

임진왜란 초기 6월까지 예안 지역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의병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일본군의 급습을 받아 첫 번째 의병은 큰 타격을 입고 와해되었다. 김륙의 부임 이후 재결성된 의병은 한때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으나, 다수의 군사를 이끌고 침입한 일본군에 패배하면서 다시 와해되었다. 용궁에서의 우복룡, 신지제 부대, 재산에서의 류종개 부대의 패배는 이 지역 의병활동이 잠시나마 위축되는 결과를 낳았다.

## 2) ‘안동열읍향병(安東列邑鄉兵)’의 결성과 일본군 근거지 당교 공략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류종개 부대의 패배 이후 예안의 의병 거의는 주춤하는 분위기였다. 의병을 모집하여도 응하지 않는 분위기였던 것이다. 그러나 영천읍성 수복으로 경상좌도의 일본군 세력이 급격히 약화되었다. 풍산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은 상주로 철수하였다.<sup>47</sup> 이처럼 전세가 변화하자 안집사 김륙이 나서 적극적으로 의병을 모집하였다.

안집사 김륙은 간절한 말로 의병 거의를 촉구하는 통문을 내는 한편 영천(榮川)·풍기(豊基)의 선비 김대현(金大賢)·곽수지(郭守智) 등과 향병을 소집하였다. 또 전 한림 김해, 생원 금응훈, 진사 임흥, 생원 이정백(李廷栢)·배용길(裴龍吉) 등이 예안·안동에서, 전 현감 이유와 진사 권옥(權旭)·이광옥(李光玉)

46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편, 앞의 책, 244쪽.

47 趙慶男, 『亂中雜錄』 2, 壬辰年 8월 3일.

이 예천에서 호응하였다. 또한 찰방 조현(趙顯)·생원 이함(李涵)·유학 백현룡(白見龍) 등이 영해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그 사이에 신흥도(申弘道)는 의성, 이인호(李仁好)는 의흥, 진사 이영남(李榮男)과 홍위(洪緯)는 군위, 김희(金喜)는 비안, 민근(閔根)·권계장(權季昌)은 청송에서 호응하였다. 물고기 비늘처럼 의병을 일으켜 그 수가 만 명이 되었는데, 모두 김해의 통솔을 받았다.<sup>48</sup>

이처럼 안집사 김륙의 적극적인 노력에 호응하여 안동과 그 주변 지역에서 활발하게 의병이 일어났다. 안동과 그 인근에서 의병을 일으키는 이들이 많았고, 이들은 8월 20일 일직에서 단일한 의병부대로 통합하였다. 의병부대 명칭은 ‘안동열읍향병’으로 하고 안동향교를 진소(陣所)로 하였다.<sup>49</sup> 9월에 들어서면서 애초에 책임자 중심의 다소 느슨한 형태의 연합 의병대였던 안동열읍향병은 점차 각 지역 부대를 하나의 통합된 부대로 편성하기 시작하였다. 9월 1일 예안과 안동의 향병이 합진(合陣)하였고, 이튿날에는 영주의 박록 부대와 의성의 향병도 합세하였다. 이로써 안동·예안·영주·군위·의성·의흥·비안·내성 등 경상좌도의 상당 지역을 포함하고, 인원수도 만 명을 상회하는 대규모 부대가 되었다. 안동열읍향병은 일직에 주둔하면서 군사의 대오를 정비하고 단일한 지휘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지휘조직을 세부적으로 재편하였다.<sup>50</sup>

『향병일기』에 군데군데 결락이 있어 이때 조직된 의병 지휘부의 면모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미흡한대로 대체적인 구성은 알 수 있다.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48 趙慶男, 『亂中雜錄』 2, 壬辰年 8월 27일.

49 金垓, 『鄕兵日記』 壬辰年 8월 5일.

50 노영구, 앞의 논문, 2001, 193~194쪽.



〈표 1〉 안동열읍향병의 지휘부 구성

직 위	이름
大將	金垓
副將	李庭栢, 裴龍吉
安東整齊將	金允思(⇒中衛將) <sup>51</sup> , 柳復起, 金淪
助戰將	朴好仁
斥候將	權克仁
伏兵將	李選忠, 金嗣權, 趙誠中
左衛將	金翌
軍糧都摠	李詠道
禮安整齊將	金澤龍
領兵將	沈智
義城整齊將	金士元, 申弘道
右衛將	申佖
軍威整齊將	李榮男
別將	張士珍
典餉有司	洪璋, 權行可
義興整齊將	康忠立, 朴文潤, 李好仁, 洪慶承
比安整齊將	趙端
奈城領兵將	南庭荀
善山鄉兵整齊將	吉云得 <sup>52</sup>
謀議士	金允明(安東), 琴應燾(禮安), 李輔(軍威), 盧景佖(善山)
掌書	金炯, 琴夢駟, 金允安, 琴憬, 權杠(⇒裴得仁) <sup>53</sup> , 鄭諫, 辛敬立, 權得可
軍官	金坪, 李適, 金兌

51 金垓, 『鄕兵日記』 壬辰年 10월 23일.

52 金垓, 위의 책, 壬辰年 12월 23일. 길운득이 김해의 지휘를 받았는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다.

53 金垓, 위의 책, 壬辰年 9월 6일.

이렇게 조직된 안동열읍향병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10월 중순까지는 활약상을 찾아볼 수 없다. 10월 하순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sup>54</sup> 10월 20일 부대를 합진하려고 하였으나, 예안 영병장이 하루 늦게 도착하였다. 이 때문에 10월 22일 출전하여 풍산에 주둔하였다. 그 다음날에는 5위로 편제된 부대를 3위로 개편하고 예천 진장(陣場)에 주둔하였다. 이후의 활동을 보면 처음에는 매복을 펴서 안동 등을 침입하는 일본군을 견제하거나 일본군의 소규모 부대를 기습 공격하는 수준이었다.

안동열읍향병의 활동이 활기를 띠기 시작한 것은 11월 8일 이후로 보인다. 이는 관군이 일본군의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11월 초 예천 쪽으로 이동하던 안동 등 6개 고을의 군사들이 일본군의 기습공격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다. 이 때문에 안동쪽으로 진출하려는 일본군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관군과 의병의 협력이 불가피했다. 그래서 11월 8일 안동 부사 김륵과 병사 박진이 군대를 거느리고 풍산으로 출진(出陣)하였고, 그 다음날 김해 역시 풍산으로 출진하였다. 이때부터 의병 대장 김해와 안동 부사, 경상좌병사가 서로 전략을 의논하기 시작하였다. 아울러 관군측으로부터 무기와 전력의 지원이 이어졌다. 11월 13일에는 화살 원료 300개, 14일에는 포수를 지원하여 화포를 시험 발사하기도 하였다. 12월 27일에는 공성 작전에 유용한 무기였던 진천뢰를 지원받았다.

관군의 협력과 지원을 받은 안동열읍향병은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

<sup>54</sup> 아래의 서술에서 날짜를 명기하는 경우는 모두 『향병일기』의 해당 날짜 기록을 참고한 것이다.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활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일본군의 주요 주둔지인 당교를 공략하기 시작한 것이다. 1592년 11월 18일 풍기·영천·예안·봉화·안동 등지의 의병을 동원하여 안동 부사 김륙의 관군과 함께 예천군 감천에 진을 쳐, 당교 일대에 주둔했던 일본군이 예천 지역으로 진출하려는 것을 차단하였다.<sup>55</sup>

그리고 이듬해 정월부터는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것은 함창 당교에 주둔하던 일본군에 대한 공격이었다. 당교 함창지역의 일본군에 대한 공격은 상주 지역 의병도 마찬가지로였다. 이처럼 상주와 안동 지역 의병이 동시에 당교의 일본군을 공격했던 것은 우선, 상주 지역 의병에서도 영천·안동 지역과 같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즉 상주에서는 1592년 10월 정기룡이 상주 가판관假判官으로 임명되면서 관군의 전열을 재정비하였다. 이와 함께 세 개의 부대로 활동했던 상주 의병이 점차 개별성과 분산성을 극복하면서 의병상호간 또는 관군과의 합동으로 작전을 전개하였다. 특히 정기룡이 상주성의 왜적을 대파하고 당교의 적을 의병진과 협력으로 공격함으로써, 이러한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sup>56</sup>

안동과 상주의 의병진이 관군과 합동으로 당교의 일본군을 공격했던 것은 이 지역의 일본 주둔군이 양 지역에 매우 위협적이었기 때문이었다. 당교는 당시 수륙 교통이 발달하여 동남북 각 지방으로 이동하기 좋은 교통의 요충지였다. 이 때문에 일본군은 상주 당교와 그 인근 지역에 상당기간 주둔하면서 부근에 있는 고을들을 침략하였다. 그러므로 당

---

55 金垓, 앞의 책, 壬辰年 11월 18일.

56 정진영, 앞의 논문, 1987, 122쪽.

시 영남 북부지방 여러 고을에서는 당교 일대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소탕하는 것이 지역의 안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로 등장하였다.<sup>57</sup>

게다가 명나라 원군이 참전하고 우리측 군대가 저항을 강화하면서 일본군은 수세에 몰렸다. 사태가 이렇게 변하자 그들은 남쪽으로 쫓기는 처지가 되었고, 1592년 말에는 일본군 일부가 충주를 거쳐 조령을 넘어 퇴각하였다. 이렇게 조령을 넘어온 일본군은 상당수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당교에 도착하여 전부터 있던 일본군과 합류하여 진을 치게 되었다.<sup>58</sup>

당교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들은 장기전을 시도하면서 방어시설을 구축하였다. 이곳의 지형조건이 대체로 낮은 구릉지 평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목책木柵을 많이 축조하여 우리측 공격에 대응하는 한편 인근 지방 침탈의 근거지로 삼았다. 목책은 나무를 다듬어 땅에 박고 이것을 서로 엮어 화살이나 총탄 등을 방어하는 군사시설로서 성곽에 비해 축조하는 데 많은 인력이 들거나 시간이 소요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당시의 전투에서는 방어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sup>59</sup> 나무 기둥을 땅에 박아 세우고 여기에 다른 나무들을 가로로 층계를 이루어 박고 엮어 그 속에 흙과 짚을 이겨 넣어서 굳히면 돌처럼 단단해졌다. 거기에 군데군데 구멍을 뚫어 놓으면 총포도 쏠 수 있었고, 망루를 만들어 주변을 관찰케 하면 힘을 적게 들고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었던 것이다.<sup>60</sup>

---

57 金晷鍾, 앞의 논문, 739~743쪽.

58 金塚, 앞의 책, 壬辰年 12월 17일.

59 金晷鍾, 『西厓 柳成龍 研究』, 새누리, 1994, 259쪽.

60 柳成龍, 『西厓集』, 雜著「設柵」.

일본군은 이렇게 당교 일대에 굳건한 방어진지를 구축한 다음 붉은 깃발과 흰색 깃발을 동시에 세워 진지의 위엄을 더하였다.<sup>61</sup> 그런 한편 일본군들은 수시로 인근 고을을 배회하면서 무자비한 침탈을 계속하였다. 예를 들어 1593년 1월 4일에는 예천군 서당동書堂洞에 쳐들어가 노략질한 뒤 마을을 불태웠다.<sup>62</sup> 또 16일 뒤에는 갈평葛坪 지방을 여러 차례 드나들며 정탐하는 한편 분탕질을 가혹하게 자행하여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sup>63</sup>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측 관군과 의병들은 당교와 그 인근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을 공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 1592년 12월에는 상주 의병이 당교 주둔 일본군을 기습하였고,<sup>64</sup> 이듬해 1월 1일에는 안동 의병장 김해가 북병장 이선충에게 당교를 야습夜襲하게 하여 많은 일본군을 살상하였다.<sup>65</sup>

이때의 전공으로 힘을 얻은 김해는 그날 감사와 병사를 만나 1월 6일을 기해 인동과 대구·당교 등 경상좌도 주위에 있는 일본군의 주요 주둔지를 관군과 일시에 공격하기로 약속하였다. 안동열읍항병은 의성 이하 4고을의 군영을 점검하여 인동의 일본군을 공격하고, 좌우 부장이 본진(=안동)과 예안의 정병을 이끌고 당교의 일본군을 치기로 하였다. 6일 인동을 공격하기로 한 항병은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흩어져 버렸지만, 당교를 공격한 부대는 관군과 함께 적의 진지에 돌입하여 많은

61 金垓, 『鄕兵日記』 癸巳年 正月 17日.

62 金垓, 위의 책, 癸巳年 正月 4日.

63 金垓, 위의 책, 癸巳年 正月 20日.

64 趙慶男, 『亂中雜錄』 2, 壬辰年 12월 12日.

65 金垓, 앞의 책, 癸巳年 正月 2日.

일본군을 사살하였다.<sup>66</sup>

1월 초순 인동과 당교에 대한 여러 차례의 공격으로 일본군을 압박한 안동열읍향병은 1월 중순 경 일단 본거지인 안동 지역으로 옮겼다. 당시 안동열읍향병은 3번으로 부대를 나누어 번갈아가며 쉬게 하였다.<sup>67</sup> 의병들이 너무 피곤해 해서 휴식을 취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sup>68</sup> 군사들의 휴식을 위해 안동으로 돌아온 이후 김해는 군사를 모으고 진천퇴를 보충하는 등 부대를 재정비하였다.<sup>69</sup>

그 와중에 1월 17일 북쪽에서 철수한 일본군들이 당교로 모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그리고 1월 20일에는 당교의 일본군이 예천 갈평을 노략질했다는 소식이 왔다. 이에 김해는 1월 22일 지휘부들을 소집하였고, 순찰사와 도사도 함께 모여 논의하였다. 1월 23일에는 명나라 군대가 평양성에서 일본군을 격파하고 봉산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렸다.

이와 같은 상황 변화 때문에 김해는 의병활동을 재개하였다. 당교의 일본군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1월 25일 안기역을 출발, 북병소로 향하였다. 군관 김평 등이 배행하였다. 그리고 2월 1일 북병소에서 정병을 선발하여 당교를 공격하게 했다. 2월 12일에는 명나라 군대는 역전을 거듭하는데 우리나라 군대는 방관만 한다면서, 명나라 군대가 도착하기 전에 일본군을 섬멸하라는 선조의 교지가 내려졌다. 이에 반응하여 김해 부대는 2월 18일부터 북병을 설치하고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2월 20일·23일·24일·26일 등 연이어 일본군과 접전을 벌였다. 2월 27일에

---

66 노영구, 앞의 논문, 2001, 203쪽.

67 金塚, 『鄕兵日記』壬辰年 11월 13일.

68 金塚, 『近始齋集』권3, 『與趙月川書』.

69 위와 같음, 204쪽.

는 조방장 권응수에게 편지를 보내 합세하여 당교를 공격할 것을 제의하였다. 권응수는 이에 화답하여 3월 7일 안동열읍향병의 진까지 와서 합공하는 방법을 논의하였다. 3월 9일 공격 예정이었으나 비 때문에 19일로 연기하고, 효과적인 당교 공격을 위해 진천퇴의 지원을 병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러나 3월 19일에도 비가 종일 내려 대대적인 협공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대신 4월 1일부터 노략질하는 일본군을 공격하는 병사 권응수를 돕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일부 군사를 선발하여 병사가 주둔해있던 산양山陽에 합세하게 하였고, 이후 여러 차례 당교를 공격하였다.

4월 28일 일본군은 당교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김해 부대는 철수하는 일본군을 공격하여 더 큰 타격을 입히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광운 李光胤, 예천 의병장 이개립李介立, 영주 의병장 김개국 등이 문경에 주둔해 있던 명 제독 이여송李如松에게 빨리 일본군을 공격하자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고 있다.<sup>70</sup> 이는 명나라 군대가 조령을 넘어 문경에 진주하자, 의병, 관군과 함께 명나라 군대와도 공동 전선을 형성해서 당교에서 철수하는 일본군을 공격함으로써 성과를 높이려 했던 것이다.<sup>71</sup>

이후 김해 부대는 일본군을 쫓아 상주·밀양·경주까지 추격하였다. 1593년 5월에는 밀양으로 진을 옮겨 일본군을 방어하였다. 이때 김해는 부인인 단인端人 이씨李氏의 상을 당해 예안으로 돌아와 초상을 치르고, 다시 진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경주에서 병이 들어 세상을 마쳤다.<sup>72</sup>

70 李光胤, 『瀛西先生文集』 卷1, 「年譜」, “(癸巳年 五月) 天朝征倭提督李如松師次于聞慶 先生與醴泉義兵將李介立 榮川義兵將金蓋國 聯名呈書急攻擊.”

71 이육, 「의병장 金蓋國의 삶과 사상」, 『東亞人文學』 21, 2012 b, 167쪽.

72 金垓, 『近始齋集』 권4, 「行狀」.

광산김씨 예안파 문중 사람들은 전쟁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의병을 결성하여 활약하였다. 처음에는 관군과 협력하여 죽령으로의 일본군 진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과부적으로 신지제와 류종개 등이 지휘하던 부대들이 연이어 일본군에게 패하고 예안이 점령당하면서 의병 활동은 한때 침체되었다. 그러나 전세가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예안의 의병이 재결성되었다. 경상북도 북부지역 대다수 군현을 포괄한 대규모의 ‘안동열읍향병’이 결성되었고, 광산김씨 예안파의 김해가 대장으로 추대되었다. 안동열읍향병은 전열을 재정비한 관군과 협력하여 일본군의 핵심주둔지인 당교를 집중 공격하였다. 마침내 일본군이 당교에서 철수하자 그들을 쫓아 밀양·경주까지 진출하였다. 이와 같은 의병 활동은 경상도에 주둔하던 일본군과 북상한 일본군 주력부대의 연결고리를 끊거나 경상도 지역의 주요 거점 지역을 분쇄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일본군의 전력을 약화시켜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 3. 김해 의병부대 활동의 특징과 의의<sup>73</sup>

앞에서 거론했듯이 김해를 대장으로 하는 의병은 크게 세 차례 결성되었다. 이러한 의병 부대 결성은 전세의 변화와 관련되었다. 첫 번째

---

73 이 장의 서술은 이육, 앞의 논문(2012 a), 3장의 서술을 바탕으로 일부 논지를 보강하였다. 이하의 서술에서 이 논문을 활용한 경우 번잡을 피하기 위해 각주를 생략하였다.



의병부대 결성은 일본군의 사기가 최고조에 달할 때였다. 전열을 정비 하기도 전에 일본군이 급습하여 별다른 활동을 전개하지도 못하고 붕괴되었다. 이때의 의병부대에서 주목되는 것은 선비(사족) 중심으로 의병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아울러 임진왜란 초기 예안 지역은 인근 안동이나 봉화·영주 등과 달리 행정 공백이 없었던 것도 의병 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예안 현감 신지제는 피난가지 않고 행정과 치안을 유지하였다.<sup>74</sup> 이 때문에 예안 지역 사족들은 예안 현감에 협조하여 의병을 결성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째 의병 결성은 안집사 김륙의 의병 거의 축구에 예안 지역 사족들이 호응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때는 예안에 그치지 않고 영주·안동·영주·풍기·봉화 등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본군에 의해 궤멸되었고, 예안이 일본군에 의해 점령되고 말았다. 그렇지만 이때의 의병 활동 역시 두 가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는 전쟁 초기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자기 향리를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다인과 의성에 주둔해있는 일본군을 공격하였다. 이를 통해 일본군의 죽령 진출을 저지하려고 하였다. 초기 의병부터 몇 개 군현을 연합하여 적극적인 공세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 번째는 초기부터 의병과 관군이 협조하여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점이다. 전력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관군과 의병의 협조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때문에 관군이나 의병 여부

---

74 金玜, 『栢巖先生文集』 권5, 「條陳慶尙道軍情賊勢狀啓 安集使時○壬辰」.

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부대를 구성하였고, 그 지휘권은 관료가 행사하는 형태였다.

이러한 모습은 세 번째 의병조직인 '안동열읍향병'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이때는 영천읍성 수복으로 전세가 반전되는 시점이었다. 이 때문에 부대 결성 규모가 이전의 의병부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안동과 예안·의성·군위·의흥·비안·내성·선산을 포함한 대규모의 부대였다. 그렇지만 1592년 9월에 결성되었던 부대가 10월 중순 들어서야 활동을 시작하였고, 그것도 안동을 침입하는 일본군을 매복을 통해 견제하거나 소규모의 일본군 부대를 기습 공격하는 수준의 소극적인 활동에 그쳤다. 11월 8일 이후 안동 부사, 경상좌병사와의 합동작전을 전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졌다.

연합전선을 구축한 다음에는 대장 김해 뿐 아니라 부장 등 여러 의병장이 수시로 병사나 안동 부사와 작전 회의를 열고 있다. 그것은 당시 전시체제를 주도하던 정치세력이 안동을 본산으로 하는 남인이었다는 점 외에도, 당시 안동이 전시체제하의 경상도 감영이 설치된 곳이어서 감사·병사·순찰사 등과 빈번한 접촉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sup>75</sup>

이 때문에 안동 향병은 관군과 잦은 합동작전을 수행하였다. 또 관군으로부터 지원받은 진천퇴를 활용해 많은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의병장에서 관군으로 신분이 바뀐 권응수와는 공동 작전을 펼쳐 당교와 인동에 주둔해있는 일본군을 공격하려 꾀하기도 하였다. 다만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은 당교에 주둔한 일본군을 안동과 상주 양쪽의 군사가 함께 공략하고 있었음에도 서로 연합한 흔적이 나타나

---

75 정진영, 앞의 논문, 1990, 43쪽.

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은 의병이 아닌 관군과 공동 작전을 전개할 때는 여전히 진관체제에 입각한 공격과 수비가 이루어졌기 때문은 아닐까 추측된다.

이처럼 예안의 의병부대는 처음부터 관군과 협조 관계에 있었다.<sup>76</sup> 그것은 의병과 관군 지도부가 학맥이나 혼인 관계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이었다. 안동열읍향명의 지휘부 구성은 앞의 <표 1>에 제시한 것과 같다. 이를 보면 김해 부대에 참여한 인사들은 대부분 그 지역의 명망 있는 사족이었다. 의병장 스스로 진정한 의병은 사족 내지 유생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경상좌도 의병의 명단을 의병도대장義兵都大將이었던 김면金沔에게 보고하였을 때, 경상좌도 의병이 모두 유생으로 편성된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참 의병이다’라고 했다는 데서 잘 나타난다.<sup>77</sup> 또 안동에서 기의하던 초기 액외유생額外儒生들이 의병 조직에 불만을 표했던 것도, 사족 중심으로 의병 조직이 편제되었기 때문이었다.<sup>78</sup>

또 이들은 학통상으로는 대체로 이황의 제자이거나 이황의 직전 제자인 조목·류성룡·김성일의 문인들이었다. 그리고 김해 부대가 결집될 때 안집사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륵 역시 이황 문인이었다. 이들 사이에는 학문적인 일체감 뿐 아니라 혼인 관계도 겹치는 매우 밀접한 사이였다. 이러한 관계가 안동 의병들이 관군과 큰 마찰 없이 공동작

---

76 물론 이 지역 의병이 늘 관군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 일례로 안동에서 의병을 일으키기 위해 200여 인을 모집했던 배용길, 병사 박진이 안동부에 들어오자 즉각 군대를 넘긴 것도 양자간의 불편한 관계를 읽을 수 있다(金垓, 『鄉兵日記』 壬辰 7월 19일).

77 趙慶男, 『亂中雜錄』 2, 壬辰年 9월 16일; 노영구, 앞의 논문, 2001, 197쪽.

78 金垓, 『鄉兵日記』 壬辰年 8월 21일.

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를 볼 때 의병장의 구성에서 사족 상호간의 유대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특히 이들 사이의 학문적 교류, 통혼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김해 부대는 퇴계 이황의 문인이 중심이었다. 게다가 이들 모두 각각 혼인으로 연결되어 있었다.<sup>79</sup> 여기에 16세기 이후 재지사족은 성리학적인 향촌 자치를 시행하려고 시도하고, 이것이 훈척계의 반대에 부딪히자 서원 건립운동을 전개하였다. 재지사족의 이러한 노력은 향촌 자치를 통해 지역민의 호응을 받았고, 또 서원 건립운동을 통해 사림 자체의 결집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결집력이 의병 활동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sup>80</sup>

다음으로 김해 부대의 경우, 안동·예안·의성·의흥·군위·비안·내성·선산 등 상당히 광범한 지역에서 참여한 부대로 이루어졌다. 또 앞에서 인용했던 『난중잡록』에 따르면, 예천·청송 그리고 영해의 의병장도 김해의 지휘를 받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경상우도 의병에서도 보인다. 임란 초기 생존과 방어를 위해 각 지역에서 창의했던 의병들이 군대 규모가 커지면서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웃 지역 의병들과 합세하고 있는 것이다.<sup>81</sup>

그런데 실제 『향병일기』에서 김해의 지휘를 받고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부대를 보면, 안동과 예안·봉화·영주·예천의 의병이었다. 의성과

---

79 이수진,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 일조각, 1995.

80 李泰鍊, 「壬辰倭亂 극복의 社會的 動力 —士林의 義兵活動의 基底를 중심으로」, 『한국사학』 5, 1983.

81 金康植, 「임진왜란 시기 松菴 金沔 軍의 의병조직 변화와 경상우도 의병의 변화상」, 『南冥學』 18, 2013.

그 이남 4읍 군현의 의병은 대체로 자기 지역을 방어하는데 치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좋은 예가 군위 별장이었던 장사진이다. 그는 군위를 침입하는 적들을 방어하는데 전력하였고, 김해 부대와 협동 전선을 취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sup>82</sup> 아마도 김해를 대장으로 하는 연합진영에는 소속되어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지역에 기반한 의병 부대들의 독립성은 인정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부대 편제 내지 조직은 안동열읍향병을 구상했던 처음부터 유지됐던 원칙이었다.

이는 김해가 연합의병부대를 결성한 후, 순찰사 김수에게 보낸 편지 내용에 잘 나타난다. 편지에서 김해는 다음과 같은 요지로 말하고 있다. “정예병을 뽑으려면 수령이 군사를 선발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선발대상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하려면 향촌 사정을 잘 아는 군관에게 선발권을 주되, 사족의 도움을 받고 향중 공론을 따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선발한 군졸을 조련하는 것도, 지휘하는 것도 모두 해당 군관에게 준다.”는 것이다.<sup>83</sup>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관군의 현지 지휘관급인 장교가 군사를 선발해서 지휘권을 갖는 체제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륙이 예안에서 군사를 모집할 때 결국 해당 지역의 사족들에게 군사 선발을 비롯한 제반 사항을 위임했던 일을 상기하면, 현지 사정을 잘 알고 또 향촌민에 대한 통제권을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었던 사족들이 독자적으로 군사 지휘권을 갖도록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의병장이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연합부대를 만

82 『宣祖修正實錄』 권26, 선조25년 9월 丁巳.

83 金垓, 『鄉兵日記』 壬辰年 10월 20일.

들면서도 각각의 의병 부대는 독자적인 지휘권을 가졌고, 또 의병대장의 작전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보다는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군사 상황을 더 우선시 했던 것 같다. 『항병일기』에 의병대장과의 약속을 어기고 출전하지 않는 사례가 간간히 보이는 것도, 그러한 사정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들의 연합과 활동영역이 조선의 전통적인 진관체제와 일치하는가의 문제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초기 의병들은 생활 근거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후기에는 관군으로 편입되면서 활동 범위가 관직 수행 장소와 관련해 넓어지는 것으로 보았다.<sup>84</sup> 최근의 연구에서는 새로운 견해가 제시되었다. 김면 부대의 활동 영역이 상주와 그 북쪽의 문경·함창 등을 제외하고 성주·선산·금산·개령·지례·고령 등 경상도의 상주진관과 완전히 일치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경상우도 의병의 활동 공간과 양상이 조선전기의 지방군 체제인 진관체제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sup>85</sup> 그런데 앞에서 보았던 안동의 의병대장 구성을 보면, 대다수는 안동진관에 소속된 지역 출신이 참여하고 있지만, 대구 진관에 소속된 의흥 출신의 의병장도 4명이나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김해 의병 부대의 연합전선 형성과 활동 영역은 사족 내부의 교류 범위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

84 金康植, 「忘憂堂 郭再祐의 義兵運動과 政治的 役割」, 『南冥學研究』 5, 1996.

85 노영구,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 의병의 성립과 활동 영역」, 『역사와현실』 64, 2007, 61쪽.

#### 4. 맺음말

광산김씨 예안파 문중 사람들은 전쟁 초기부터 자발적으로 의병을 결성하여 초기부터 활약하였다. 처음에는 관군과 협력하여 죽령으로 일본군 진출을 막기 위해 노력하였다. 중과부적으로 신지제와 류종개 등이 지휘하던 부대들이 연이어 일본군에게 패하고 예안이 점령당하면서 의병 활동은 한때 침체되었다. 그러나 전세가 회복기미를 보이면서 예안의 의병이 재결성되었다. 경상북도 북부지역 대다수 군현을 포괄한 대규모의 '안동열읍향병'이 결성되었고, 광산김씨 예안파의 김해가 대장으로 추대되었다. 안동열읍향병은 전열을 재정비한 관군과 협력하여 일본군의 핵심주둔지인 당교를 집중 공격하였다. 마침내 일본군이 당교에서 철수하자 그들을 쫓아 밀양·경주까지 진출하였다. 이와 같은 의병 활동은 경상도에 주둔하던 일본군과 북상한 일본군 주력 부대의 연결고리를 끊거나 경상도 지역의 주요 거점 지역을 분쇄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일본군의 전력을 약화시켜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김해 부대에 참여한 인사들은 대부분 그 지역의 명망 있는 사족이었다. 이들은 학통상으로는 대체로 이황의 제자이거나 이황의 직전 제자인 조목·류성룡·김성일의 문인들이었다. 그리고 김해 부대가 결집될 때 안집사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김륵 역시 이황 문인이었다. 이들 사이에는 학문적인 일체감 뿐 아니라 혼인 관계도 겹치는 매우 밀접한 사이였다. 이러한 관계가 예안의 의병이 관군과 큰 마찰 없이 공동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였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김해 부대의 경우, 안동·예안·의성·의흥·군위·비안·내성·선산 등 상당히 광범한 지역의 사족들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공동전선을 구축하지는 않았다. 김해를 대장으로 하는 연합진영에는 소속되어 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지역에 기반한 의병 부대들의 독립성은 인정했기 때문이었다. 각각의 의병 부대는 독자적인 지휘권을 가졌고, 또 의병대장의 작전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보다는 자신들이 속한 지역의 군사 상황을 더 우선시 했던 것 같다. 『향병일기』에 의병대장과의 약속을 어기고 출전하지 않는 사례가 간간히 보이는 것도, 그러한 사정에서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예안 의병은 관군 지휘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관군이 지닌 병력과 무기의 우수함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예안 의병의 활동은 기존 임진왜란사나 의병사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임란 초기 관군의 활동에 대한 새로운 평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 2016. 06. 25 : 논문투고

• 2016. 07. 28 ~ 08. 12 : 심사

• 2016. 08. 16 :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



##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金 玘, 『栢巖先生文集』

金誠一, 『鶴峯先生文集』

金 塚, 『近始齋先生文集』

金 塚, 『鄉兵日記』

柳成龍, 『西厓先生文集』

李光胤, 『瀼西先生文集』

李汝馥, 『炊沙先生文集』

李擢英, 『征蠻錄』

鄭士誠, 『芝軒先生文集』

趙慶男, 『亂中雜錄』

趙 靖, 『壬亂日記』

金康植, 「忘憂堂 郭再祐의 義兵運動과 政治的 役割」, 『南冥學研究』 5 (1996)

金康植, 『壬辰倭亂과 慶尙右道の 義兵運動』(혜안, 2001)

金康植, 「임진왜란 시기 松菴 金沔 軍의 의병조직 변화와 경상우도 의병의 변화상」, 『南冥學』 18(2013)

金龜鉉, 「壬辰倭亂中の 安東義兵」, 『鄉土慶北』 창간호(1987)

金昊鍾, 『西厓 柳成龍 研究』(새누리, 1994)

金昊鍾, 「壬亂때 唐橋倭賊과 嶺南 北部地方 鄉兵의 抗爭」, 『歷史教育論集』 23·24(1999)

盧永九, 「임진왜란 초기 近始齋 金塚의 의병 활동」, 『君子里 그 文化史의 性格』(2001)

오영근, 「임진왜란 초기 경상우도 의병의 성립과 활동 영역」, 『역사와

현실』 64(2007)

-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편, 『慶北義兵史』(慶尙北道, 1990)
- 이수건, 『영남학파의 형성과 전개』(일조각, 1995)
- 李旭, 「의병장 金蓋國의 삶과 사상」, 『東亞人文學』 21(2012 b)
- 李旭, 「임진왜란 초기 경상좌도 의병 활동과 성격」, 『임란의병사의 재조명』((사)임진란정신문화선양회, 2012 a)
- 이상희, 「壬辰倭亂 義兵性格의 分析」, 『韓國史論』 22(국사편찬위원회, 1992)
- 李泰鎭, 『韓國軍制史 — 朝鮮前期篇』(육군본부, 1968)
- 李泰鎭, 「壬辰倭亂 극복의 社會的 動力 — 士林의 義兵活動의 基底를 중심으로」, 『한국사학』 5(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3)
- 李炯錫, 『壬辰戰亂史 上·中·下』(壬辰戰爭史刊行委員會, 1974)
- 정진영, 「안동지역 壬亂義兵」, 『安東文化研究』 창간호(1996)
- 정진영, 「경상도 임란의병의 활동 배경과 의의」, 『지역과 역사』 18(2005)
- 崔永禧, 『壬辰倭亂中の 社會動態』(韓國研究院, 1975)
- 최효식, 『임진왜란기 영남의병연구』(국학자료원, 2003)
- 최효식, 『임란기 경상좌도의 의병항쟁』(국학자료원, 2004)

## The Righteous Army Movement Led by Gwangsan Kim Clan during the Imjin War(Japanese Invasion of 1592~1598) and Its Significance

Lee, Uk

Sunchon Univ.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righteous army movement led by Gwangsan Kim clan during the Imjin War and its significance. Kim Hae, in particular, who was one of the members of Gwangsan Kim clan, was in the center of the righteous army in Ye-Ahn since the early Imjin War. After organizing Andong Yeol-eup Hyang-byung, he generalized the righteous armies in northern area of Gyeongbuk province as a general. This paper examines the aspects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righteous army movement in Andong and Ye-Ahn.

Since the early Imjin War, Gwangsan Kim Ye-Ahn clan voluntarily organized and played an active part in the righteous army. At first, they tried to stop Japanese advance into Jungnyeong in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troops. They accomplished the intended goal, but the movement of righteous army in this area became less active since Japanese invasion of Ye-Ahn. However,

the righteous army re-formed after the war situation reversed, 'Andong Yeol-eup Hyang-byung' which included most of the areas in northern Gyeongbuk, was organized. Kim Hae was the general of it. Andong Yeol-eup Hyang-byung attacked Danggyo which was the core military post of Japanese army in cooperation with the government troops. They also advanced into Miryang and Gyeongju when Japanese withdrew their troops in Danggyo. The righteous army disconnected the Japanese army in Gyeongsang province and the one in the upper area and destroyed the military post within Gyeongsang province. Thus, they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weakening Japanese military strength and leading the war in their favor.

Andong Yeol-eup Hyang-byung which was generalized by Kim Hae, was like a combined army composed of prestigious local elites. Most of them were Lee Hwang's literati. The government troops were also the same. They were closely connected as they had the sense of unity in terms of studying and marriage. This mad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eous army in Ye-Ahn and the government troops close. They were able to achieve their goal because of the military strength and good weapons of the government troops. The righteous army movement in Ye-Ahn provides a new perspective to the studies on the history of Imjin War and righteous army. This leads to re-evaluate the movement led by the government troops during the early Imjin War.

Key words

: Imjin War(Japanese Invasion of 1592~1598), Ye-Ahn, Gwangsan  
Kim clan, Kim Hae, Righteous army, Andong Yeol-eup  
Hyang-byung

